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서관분야 공약 분석*

An Analysis of Candidates' Library-field Promise in the Local Election

김 선 애(Sun-Ae Kim)**

초 록

본 연구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제시하였다면 어떤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간에 공약 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도서관관련 문제를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하며, 지방선거에서 도서관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있다. 도서관관련 문제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다가설 경우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2010년 6.2일 실시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관련 공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들의 도서관관련 공약은 도서관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약이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중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 제안,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업무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및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한 도서관 발전 등을 제안한 공약은 매우 미흡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promises of library field were, what the promises of candidates were, and whether the content of the promises showed the dissimilar tendency or discrepancy.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was that the library-related issues should be raised in the local election in order that library-related problems in the local area were considered as the policy. The standpoint of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notion the library-related problems could be settled if the candidates have an interest in the library field. The range of this research was limited in the election conducted in June 2, 2010. Candidates' promises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categorized and analyzed by subjec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most candidates had interest in establishing of library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y had no interest in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y policy, allocation of budget, and job creation for librarian.

키워드: 지방선거, 도서관분야 공약, 도서관공약 분석, 도서관정책분석, 설문조사
Local Election, Library-related Promise, Library Promise Analysis, Library Policy Analysis, Survey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sa@ks.ac.kr)

논문접수일자 : 2011년 2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3월 11일

1. 서론

본 연구는 2010년 6.2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도서관관련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제시하였다면 공약내용은 어떠한지, 광역단체장후보들과 혹은 기초단체장 후보들간에 공약내용이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차이는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관련 공약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적은 편이며, 정책화하여 개선하려는 의지도 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도서관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지역의 도서관 문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의 문제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바람직한 도서관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공약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도서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방의 도서관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다.

선거분야에서 도서관문제가 정책의 문제로 채택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하여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선거 후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 선거권자에게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권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선거권자들이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도서관관련 공약에 대한 선거권자의 관심이

미약하며, 도서관관련공약이 후보자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도서관관련 공약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가 시기상조일수도 있다. 그러나 도서관 문제를 정책의 제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서관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각 정당 및 입후보자들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에게는 지역의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6.10 지방선거 입후보자 및 정당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도서관관련 공약을 조사·분석하였다.

2. 선거공약 분석방법 및 기존 연구동향

2.1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은 설문조사에 의한 내용분석이다.

연구의 범위는 2010년 실시되었던 6.10 지방선거에 한정했다. 2010년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공약조사는 2010년 5월 17-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자치단체장 후보를 낸 주요정당 10곳,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8명,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 776명 중 응답을 거부했거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고 총 774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도서관관련 공약사항의

제시 유무와 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지를 받은 입후보자중 12%에 해당하는 68명이 회신하였으며, 회신한 68명의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해 확보된 도서관 관련 공약의 분석을 위해 공약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의 방법상의 절차는 3개의 중심과정으로 구성된다(정대연 1997). 1) 방법의 카테고리를 정한다. 2) 분석의 단위를 결정한다. 3) 분석의 단위를 계량화한다.

분석의 범주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내용의 실체에 관한 범주화 방식이고 둘째, 내용의 형식에 관한 범주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실체에 관한 범주화를 사용하였다. 즉, 내용의 주제를 분석하고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의 단위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어(word)와 주제(theme)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는 출현여부와 빈도체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배타성(mutually exclusiveness)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주화과정에서

분야별로 독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첩될 수 있는 범주는 합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완전포괄성(collective exhaustivenes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타 공약'처럼 처리되지 않아 공약이 무용화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타당성은 범주화된 내용과 그 의미가 같이 전달되면 그 범주화 작업은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연구도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주화된 단어와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표 1>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해결하고자 했다.

2.2 선행연구

선거와 공약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약분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비교분석과 공약

<표 1> 분석을 위한 단어의 범주화

도서관관련 공약	관련단어
도서관 인프라구축	도서관 건축, 도서관 리모델링, 유휴공간 활용, 학교교실 개조 등
조직 및 인력 확충	사서배치, 사서채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인력확보 등
도서관 개방 및 협력	학교도서관 개방,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연계협력시스템, 통합대출시스템, 민관협력 등
장서확충	자료구입비 지원, 자료구입비 증액 등
독서진흥 시책	한 도시 한 책 읽기, 북스타트, 책 읽는 도시 등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독서모임, 글쓰기, 시낭송, 백일장, 작가초청, 명사강좌, 인문학 강의, 문화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관련 예산지원, 인력배치, 보조금 지급, 장서구입비 지원, 교육지원 체계 등

분석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계량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공약분석의 경향은 주로 첫 번째 경향인 공약내용들을 후보자와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내용의 차이를 해석하는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에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과 성과평가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영탁 2000). 이 연구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하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야별 지표를 파악한 후 그 지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송근원(1994)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보건, 사회, 여성 분야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이장(1992)은 제14대 대통령선거시 정당간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공약을 비교 연구하였다. 지역공약에 대한 연구로는 비록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역에 대한 공약내용과 당선자들의 공약내용을 분석한 예가 있다(권혜영 1991).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해 연구한 기존 연구로는 황경수의 연구를 들 수 있다(황경수 2002).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1990년대 이후에 행해진 2번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입후보자들을 당선그룹과 낙선그룹으로 구분하여 교통관련 공약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후보자들의 교통관련 공약이 더 많이 표명되었으며, 낙선그룹보다는 당선그룹에서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정책에 대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연구는 후보자들을 당선그룹과 낙선그룹으로 구분하여 교통관련 공약 분석을

통해 교통문제에의 관심이 당선에 영향을 끼친 정도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충북지역의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정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정도를 통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김병식 2002). 이 연구의 결과는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공약수에 있어서는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개발정책이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재분배정책 관련 공약이행에 있어서는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높은 이행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주역주민들의 상반된 경제적 이해가 걸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표출된 의사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도 있었다(정창무, 용해영, 이현식 2002). 이 연구는 대규모 도시개발공약이 지역주민들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제1차 동시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도시개발예정지와 선거구까지의 거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예정지로부터 각 선거구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선거구와 가까운 지역에 대한 대규모 도시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커진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한국사회의 투표행태를 설명함에 있어, 거리조작성을 지니는 대규모 도시개발공약 역시 지역연고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확인이며, 향후 도시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정치적인 측면의 고려가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계량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공약내용을 당선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며, 주로 교통관련 공약, 도시개발공약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 등을 주제로 하여 연구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지방선거에서 도서관관련 공약에 대한 분석은 없었으며, 특히 전국의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내용조사를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관련공약을 당선과 연결하는 계량적 연구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되었던 공약내용분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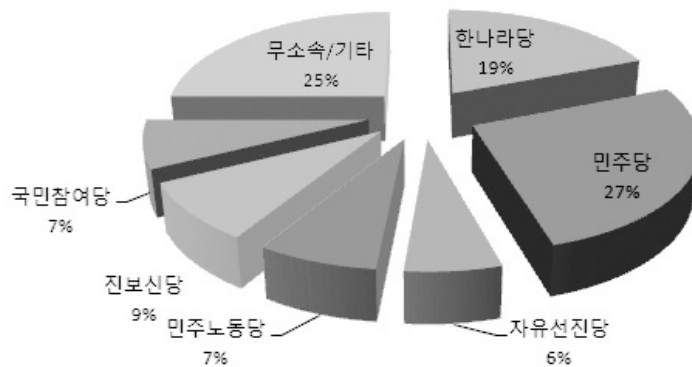
3. 공약에 대한 집단별 분석

3.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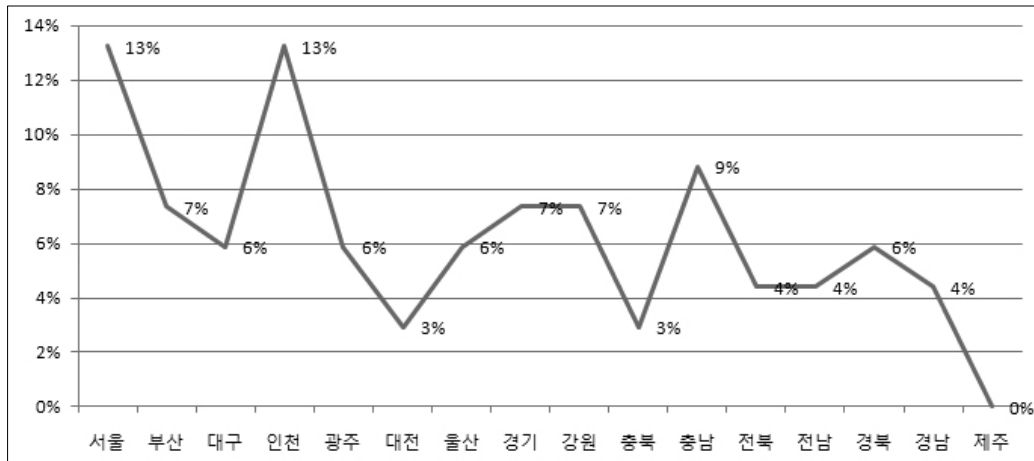
2010년 6.10 지방선거의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관련 공약조사 설문에 응한 후

보자들의 정당별 소속을 파악하였다.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보내온 후보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당은 민주당으로 27%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19%, 진보신당 9%,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 7%, 자유선진당이 6%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기타 군소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들도 25%를 차지하였다(그림 1 참조).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각 9명으로 1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제주도는 단 한 명의 입후보자도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충청남도에는 6명의 입후보자가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는 5명의 입후보자가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4명의 입후보자가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1〉 도서관관련 공약 제시 후보자들의 정당별 분포



〈그림 2〉 도서관관련 공약 제시 후보자들의 지역별 분포

3.2 정당별 도서관관련 공약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도서관 관련 공약 조사와 관련하여 설문이 발송된 10개 정당 중 정당차원의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회답을 준 곳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두 곳 뿐이었다.

진보신당은 2008년 <포럼 문화와도서관(www.libraryforum.kr)>에서 실시한 2008년 총선조사에서 정당차원의 도서관공약을 제시했던 유일한 정당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으며, 문화분야 및 정보통신/미디어 분야에 걸쳐 도서관공약을 제시하였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도서관관련 공약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에 생활밀착형 지역공동체 도서관을 1개관씩 건립하겠다는 것과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최첨단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신당의 도서관 공약 중 특이한 사항은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에 대

한 지원을 문화재정의 2%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당이 정당차원에서 제시한 도서관 관련 공약은 거주밀집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집 앞 작은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도서기증 캠페인 등 후원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 공립도서관과 시민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도서관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련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도서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주요 공약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 공동체 형성이다 (표 2 참조).

〈표 2〉 정당별 도서관 관련 공약 내용

정 당	도서관관련 공약 내용
진보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지역 공동체 도서관 읍·면·동에 1개씩 설치 - 생활밀착형 개가실 도서관, 어른과 아이들의 책 놀이터 개념의 도서관을 전국 읍·면·동에 하나씩 마련 - 도서관 자료구입비, 문화재정의 2% 수준으로 국고지원 - 음반, DVD, 오디오북, 외국어(외국인 다수 거주지역)도서 등 다원화된 자료 구비 • 마을마다 정보센터! - 지역 공공도서관을 최첨단 정보센터로 - 공공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기능 확장, 정보센터운동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다양한 계층의 특화된 정보욕구를 파악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국민참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집 앞 작은도서관 설치 - 생활권 내 도서관 수와 분포를 분석, 작은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거주밀집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우리집 앞 작은 도서관'을 2010~14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 •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문화일자리도 창출 및 마을 인문공동체 형성 - 지자체 도서관 지원에 대폭 확대하고 지역 및 기업의 도서관증쇄인 등 후원문화를 형성 - 지역 내 공립도서관과 지역 시민네트워크를 결성, '우리집 앞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자를 교육 - 미취업도서관사서, 독서토론티도사, 방과후 학습지도사, 아이들, 어르신을 위한 차별화된 돌보미 등 지역내 문화일자리도 창출 - '마을사람책' 대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3 광역단체장 후보의 도서관관련 공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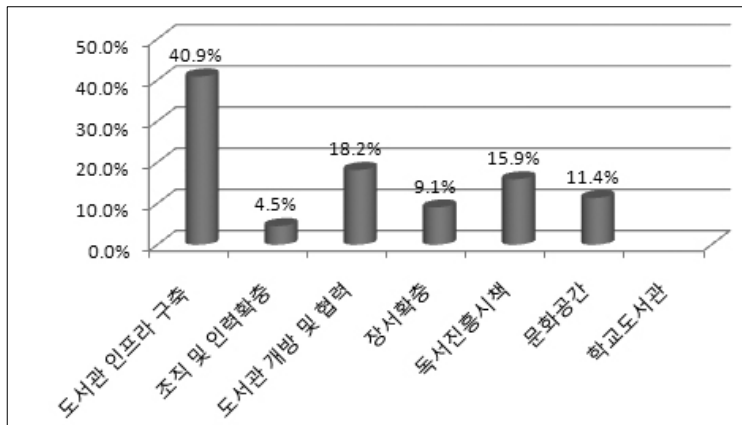
2010년 6.2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중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후보자는 16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 3명중 2명이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서는 단 한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도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여부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도서관 관련 공약이 당락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지역연고로 인해, 선거의 승패가 예측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선거 공약 개발에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체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 설문에 응한

광역단체장 후보 16명의 도서관관련 공약내용을 미리 범주화한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화는 도서관 인프라구축, 조직 및 인력확충, 장서확충, 독서진흥시책,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성,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개방 및 협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16명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도서관 관련 공약내용을 계량화한 결과 총 공약건수는 44건이었으며,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내용은 도서관 시설 확충 부분으로 전체 공약 44건 중에서 18건으로 전체공약의 41%를 차지하였다. 즉,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가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 혹은 마을도서관 형태의 동네 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였다(표 3, 그림 3 참조).

〈표 3〉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여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전체후보(명)	5	2	3	4	6	4	3	3	3	3	3	5	4	4	2	4	58
회신(명)	3	0	0	1	0	1	2	2	1	1	2	0	1	2	0	0	16
회신율(%)	60	0	0	25	0	25	67	67	33	33	67	0	25	50	0	0	28



〈그림 3〉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 내용

다음으로는 이미 많은 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스타트 운동, 한 책 한 도시 운동 등을 통해 독서진흥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15.9%로 나타났으며, 도서관개방, 도서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도서관 개방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공약도 전체의 15.2%를 차지했다. 도서관을 지역의 커뮤니티공간, 주민 소통공간이면서 작가초청, 명사강좌, 인문학강의,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을 증대하겠다는 공약은 11.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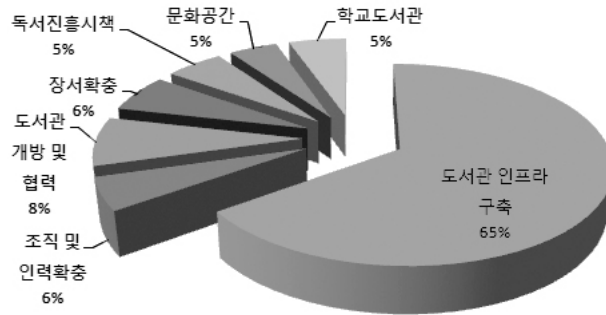
반면 도서관의 조직, 인력확충 및 장서 확충에 대한 공약은 미미하였다. 경기도의 심상정

후보, 서울시의 한명숙 후보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김상하 후보만이 장서확충 혹은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확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김창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와 달리 도서관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 - 작은도서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타관중간 협력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울산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표 4 참조).

〈표 4〉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

no	후보명	공약내용
1	이광재 (강원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서관 조성 - 새 도서관 건물을 짓는 비용을 도서관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쓰고 빈 건물 중 유휴공간들을 활용 - 읍·면·동마다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마을문고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음 • 읍·면·동에 적어도 1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조성 - 공공시설과 유휴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읍면동별로 실정에 맞는 작은 도서관 확충 • '농어촌지역 학교마을도서관조성' 사업 지원 확대로 강원도 전역의 학교마을도서관 사업 확대
2	심상정 (경기도) (진보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마다 1개씩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도민이 책 읽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문화프로그램 실시 - 초·중·고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야간으로 개방하고, 사서를 지원하여 양질의 독서문화를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함 - 작은 도서관은 생활밀집지역에 개가식으로 설치하고, 대형도서관과 도서교류시스템을 확립 - 도민 1인당 장서2권 확충, 음반, DVD 등 미디어 자료대출 추진 • 작가초청, 독서모임, 글쓰기, 시낭송 등 독서활동과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3	유시민 (경기도) (국민참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설치 - 주민이 편하게 접근하여 책도 보고, 차를 마시며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제안 - 마을마다 1개씩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간, 주민과 주민간의 소통과 토론의 공간을 창출 - 삶의 감동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명사강좌, 인문학강의 등 프로그램 개설 - 책 읽는 공동체 실현
4	윤병태 (경상북도) (민주노동당)	경북지역 331개 읍·면·동에 마을 속 작은도서관 건립
5	유성찬 (경상북도) (국민참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건립 - 턱없이 부족한 인구대비 공공도서관수, 미흡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안 - 지역내 문화일자리 창출, 인문공동체 도모
6	박성호 (대전광역시) (한나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낡은 교실을 활용하여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 초·중등학교도서관에 경력단절 여성을 학교도서관관리사로 배치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도서관활용도를 높임 • 교내의 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한밭도서관 외부환경정비 사업 • 월평지역 도서관 건립
7	지상욱 (서울특별시) (자유선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인 '우리아이교육문화센터' 내에 지역별 사정에 따라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설치. 구체적인 계획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울 예정
8	노회찬 (서울특별시) (진보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마다 주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 200개소 설치 - 기존의 새마을문고, 지하철 유휴공간, 직장 내 도서실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 속 도서관사업 시행 - 신규 구청 등 건립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도서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정 인센티브 부여 • 도서관 + 전자책 + 대학도서관개방 등 '뉴-직지(直指)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의 질 향상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 • 책과 문화의 흩날리는 지하철 문화·도서관사업 추진

no	후보명	공약내용
9	한명숙 (서울특별시)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고 작은 공공건물,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청소년회관, 문화공간, 아파트, 경로당 등에 작은 도서관 기능 보강. 부족한 책과 자료는 거점 도서관과 연계 • 사람을 대출하는 'Living Library'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 사는 수많은 명사, 전문가 등과 보통시민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확대·강화 • 어린이도서관과 북카페 기능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에 책과 영상자료뿐 아니라 장난감과 좋은 게임도 비치.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을 위해 북카페기능도 추가 • 우리동네학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현재 107개인 서울시내공공도서관수를 220개 이상으로 확충 • 예산을 4배 늘리고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서관관련 예산을 현 250억 원 수준에서, 임기 중에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10	김창현 (울산광역시) (민주노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임기 내 100개 조성 • 공공도서관 - 학교도서관 - 작은도서관 통합운영시스템 • '울산도서관네트워크' 구축 • 도서관내 문화프로그램 강사 지원 •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읽어 주는 도서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등 특화된 도서관 조성
11	노옥희 (울산광역시) (진보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공공도서관을 30개소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고려, 지역공동체의 주요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회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30개 임기 내 단계별 확충
12	김상하 (인천광역시) (진보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공공시설 리모델링, 신규도서관 확보, 지역 내 학교도서관개방 유도, 자료구입예산 확보, 유급 운영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확충 - 마을도서관에 음반, DVD, 오디오북 등 다양한 미디어를 배치해 대출서비스도 제공하고 작가초청, 독서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 •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막아내고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추진
13	박준영 (전라남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14개관 건립 목표
14	박상돈 (충청남도) (자유선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교육(체험)과 유틸리티를 응용한 사업다양화의 일환으로 유리 박물관, 도서관, 작품관, 체험관, 테마파크 조성 등
15	안희정 (충청남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마을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이 손쉽게 책읽을 공간을 마련
16	이시중 (충청북도)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과 함께 책을 선물하는 북스타트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스타트코리아와 함께 아기에게 책을 선물, 제천도서관 3곳, 청주기적의 도서관 시행 • 읍·면·동별 작은도서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어서 20분 이내 도서관가기 •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한 노인도서관 설치



〈그림 4〉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내용

3.4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도서관 관련 공약 분석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중에서 도서관관련 공약 설문에 응한 5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도서관관련 공약내용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내용 분석과 마찬가지로 미리 범주화한 내용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52명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도서관 관련 공약내용을 계량화한 결과 총 공약건수는 112건이었다. 계량화된 공약을 분석을 위해 범주화한 내용에 따라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내용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 시설 확충 부분으로 전체 공약 112건 중에 91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도 작은 도서관 건축, 마을도서관 건축, 노인도서관 건축, 유희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공간 확보, 노후화된 도서관 리모델링 등 도서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조직, 인력, 예산확보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인프라 구축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내용이 도서관 개방 및 협력으로 도서관 야간 개방, 공공 도서관간

협력, 공공 및 작은 도서관간 협력,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타 관공관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서 15.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독서진흥시책’에 관한 공약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서는 전체의 5%로 우선순위에서는 4순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공약으로 학교도서관의 인력배치, 장서확충 등에 관한 내용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서는 5%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후보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조직 및 인력확충에 관한 내용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서 비교적 더 관심공약이었다(그림 4 참조).

4. 2010년 6.2 지방선거의 도서관 관련 공약 종합분석

2010년 6.2 지방선거의 도서관관련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정당차원의 공약은 정당의 정책 방향, 중점분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해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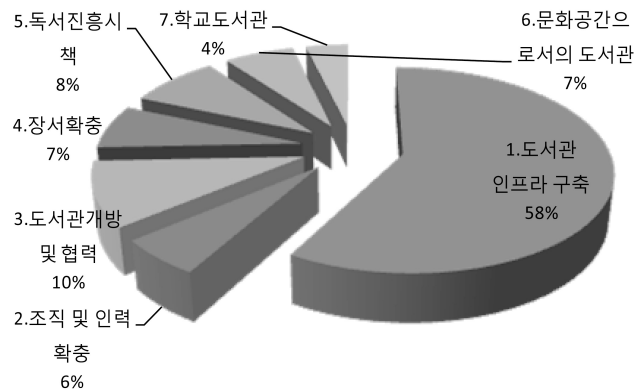
있는데, 비록 다수당은 아니지만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이 정당 차원의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진보신당에서 제시한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문화재정의 2%수준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보다 진일보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 공약의 가장 많은 내용은 인프라 확충이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인프라 구축이 58%로 압도적이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종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을 제안한 공약이 10%,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이 8%, 도서관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공약이 7%,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제안한 공약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각각 6%,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의 공약은 4%

를 차지했다(그림 5 참조).

인프라구축과 관련한 공약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거점도서관 혹은 서비스 포인트로서 기능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짓는 것이었다. 미니도서관, 동네작은도서관, 아파트작은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명칭이 나타내듯 도서관의 기본목적에 보육, 학습 등의 부대기능을 조합한 내용의 제안들이 두드러졌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정보를 매개로 한 도서관의 기본기능이 위축되고 지나치게 목적이 혼재된 프로그램을 양산시킬 우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약이행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비해 인력 확보 및 장서확충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질적 개선에 대한 공약은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인력지원, 장서확충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공



<그림 5>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 내용

약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구축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력 지원 또는 확충에 대한 내용이 공약에 포함된 경우라도 대부분이 작은도서관에의 사서배치나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사서채용 지원에 대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과 서비스의 중심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 인력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서확충 등 콘텐츠를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질적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공약 중 구체적인 것은 진보신당이 제안한 도서구입비 예산을 자치단체 문화재정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과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임기 중에 도서관관련예산을 250억 원 수준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도서관의 문화공간 기능 강화, 학교도서관 개방, 도서관협력 등의 공약이 두드러졌다. 도서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범주에 포함되는 공약들로는 독서모임, 글쓰기, 시낭송, 백일장 등 문학 프로그램과 작가초청, 명사 강좌, 인문학 강의 등 양질의 강의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 공연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공약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광역자치단체 후보 4명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서울, 대구) 두 명이었고, 정

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2명, 민주당, 진보신당이 각각 1명씩 제안하였다. 공약 내용은 학교내 남은 교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초·중·고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야간까지 개방하는 방안, 관내 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동네의 작은도서관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작은도서관 신축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학교도서관 수를 확대하는 공약 등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어떤 방법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사항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학생 및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만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르는 장서와 서비스 내용, 인력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칫 정책이 오도될 경우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운영태도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협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도서관 협력에 관한 공약은 주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많이 제시하였다. 내용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초·중·고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과의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통합대출시스템 구축 등 다양했다. 지역사회 안에서 각 관종의 도서관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활동의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 역시 새로운 민관협력의 현장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관련 공약의 주 내용은 인력 및 장서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없었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5명으로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이 각 1명씩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명, 무소속이 4명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서인력 및 장서구입비 지원, 사서전문인력 배치, 학교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서 확보 지원 등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약은 주로 사서인력과 장서구입비 지원이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다.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 중 학교도서관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청의 업무에 속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독서진흥 관련 공약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서 많이 나타났다. 김해, 청주, 파주 등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지고 한 도시 한 책 읽기나 북스타트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서진흥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시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책 읽는 도시 추진이나 북스타트 운동 등의 독서진흥시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전체 13건의 공약 중 7건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어서 독서진흥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진흥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자료를 확충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추진하더라도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개념이 가지는 범주가 무척이나 넓고 크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한 시책 추진 외에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의 독서진흥시책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외에도 새롭게 이를 제시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도 있어 책 읽는 도시 추진 등의 독서진흥시책 추진은 앞으로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정치에서의 투표도 그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도서관분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내용중 도서관 관련 공약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6월 10일 행해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약내용중 도서관관련 공약의 존재여부와 공약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17-20일 3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후보자를 제외하고 주요 정당 및 후보자 774명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입후보자중 12%에 해당하는 68명만이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내왔다. 회신한 68명의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차원에서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제시한 곳은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이 유일하였다. 이들 정당들이 제시한 내용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도서관구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둘째, 공약내용을 광역단체장 후보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두 그룹간의 공약내용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두 그룹모두에서 도서관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약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중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 제안,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이 등에 대한 공약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 예산 확보에 관한 공약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 관련 공약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도서관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즉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공약분석을 통해 이 연구가 의도한 것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서관 분야에 대한 관심 유도이면서 동시에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 평가의 잣대로 도서관 관련 공약내용

을 분석하겠다는 메시지 전달이었다.

전국단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불모지였던 도서관관련 공약을 조사했다는 것이 이 연구가 갖는 의의라면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참여한 후보자가 매우 적었다는 것이다. 예측했었지만 후보자들이 도서관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전체 후보자중 12%에 해당하는 68명의 후보만이 도서관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아직은 도서관 문제가 지방정부차원에서 정책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록 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이 제시한 도서관관련 공약의 대부분이 시설과 공급위주의 공약이었다는 것도 이들이 도서관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설과 공급중심의 도서관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 공급중심의 공약보다는 장서확충, 예산확보, 인력확충 등 도서관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정책 등을 통해 도서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방정치과정이나 정책과정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서관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안을 이슈화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2008년 총선 도서관공약조사 [online]. [cited 2010.2.10]. <포럼 문화와도서관 (www.libraryforum.kr)>.
- 6.2 지방선거 공약분석게시판 [online]. [cited 2010.2.10]. <포럼 문화와도서관 (www.libraryforum.kr)>.
- 권혜영. 1991. 『제13대 국회의원선거공보 내용분석-서울지역 42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김병식. 2002.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통권38호): 201-217.
- 송근원. 1994. 제14대 정책 공약의 비교평가-보건, 사회, 여성분야. 『경성대학교 논문집』, 15(1): 145-170.
- 엄기홍. 2008.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 평가지수 개발. 『한국정당회보』, 7(2): 217-238.
- 윤지웅. 2010. 새로운 정책공약 평가지표 및 방법에 대한 탐색적 접근. 2010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년 4월 16일. 서울: 한국정책 학회. 자료집: 297-326.
- 이영탁. 2002. 『평가지표를 통한 역대 대통령의 업적 평가 - 취임사에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이 장. 1992. 14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의 국가안보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사회과학연구(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159-178.
- 정대연. 1997. 『사회과학방법론 사전』. 서울: 백의출판사.
- 정창무, 용해경, 이현석. 2002. 도시개발공약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미친 영향. 『도시연구』, 8: 234-252.
- 황경수. 2002. 제주도 지방선거 교통분야 공약의 지역별 차이 및 당선과의 관계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통권38호): 219-236.